경남 대학생 전법 희망의 빛 '연화'

진주 경상대 불교학생회, 재창립 1주년 기념법회

학생 줄어 2018년 활동 중단
5년 공백기 후 지난해 재창립
지역 스님과 교수들 뜻 모아
범어사, 지원금 500만원 전달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이도경 부산지사장



진주 경상국립대 불교학생회 연화가 8월 19일 범어사 설법전에서 재창립 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진주 경상대학교 불교동아리 '연화'가 재창립 1주년을 기념하며 대학생 전법도량으로 더욱 성장할 것을 다짐했다.

진주 경상국립대 불교학생회 연화(지도법사 담산)는 8월 19일 범어사 설법전에서 재창립 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기념법회에는 대학생들의 전법활동을 응원하며 범어사 주지 보운 스님, 연화불교학생회 지도법사 담산 스님, 범어사 포교국장 눌은 스님을 비롯해 김용진 지도교수, 유정현 대불련 회장, 문성국 대불련경남지부 동문회장, 유솜이 3대 연화불교학생회장 등 학생 50여 명이 동참했다.

기념법회는 △삼귀의 및 한글반야심경 △발원문 낭독 △연혁 보고 △축사 △인사말 △꽃다발 전달식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이날 대학생 전법활동을 응원하며 범어사 주지 보운 스님이 활동지원금 500만원을 연화불교학생회에 전달했다. 아울러 범어사는 법회에 앞서 연화불교학생회를 위해 템플스테이를 무료로 제공하고 지지했다.

범어사 주지 보운 스님은 "불교는 매우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며 현실적이다. 여러분들이 불교를 체계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불교가 내가 알던 그 불교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반드시 알게 될 것"이라며 "여러분은 기존 기성세대가 접근했던 불교와 전혀 다른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실존적인 불교로 접근해보라. 불교를 제대로 알아가면 그 누구보다 시대를 앞서가는 세대가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지도법사 담산 스님은 "이런 여법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범어사 주지스님, 먼 길 오셔서 축하해주시는 대불련 관계자 분들, 지역대학교 불교동아리 회장님들께 감사인사를 올린다"며 "무엇보다 이 자리가 있게 해준 연화 법우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앞으로 더욱 정진하여 5주년, 10주년 행사로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김용진 지도교수는 "작년 창립 당시에는 회원이 3명이었는데 지금은 50명이다. 지금까지 힘써준 지도법사 스님과 역대 회장 및 회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불교학생회는 학생들이 불교를 접하도록 돕는 최전선이다. 연화는 대학생 불교 포교의 모범적 사례로 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유정현 대불련 회장은 "대학생 불자가 줄어들고 불교학생회가 사라져가는 현시점에 경상대 불교동아리 연화는 희망의 빛"이라며 "그동안 한마음으로 힘써주신 지도법사스님, 지도교수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의 노력에 찬탄을 보낸다"고 인사했다.

유솜이 연화불교학생회장은 "지금 이 자리가 있게끔 노력해주신 스님과 지도교수님, 무엇보다 없어서는 안 될 우리 연화 법우들에게 감사하다"며 "많은 청년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자비와 봉사를 실천하며 정진하는 꽃인 연화가 되게끔 지켜봐주시고 응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연화불교학생회는 1967년 창립 이후 불교 수행 및 정진을 이어오다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해 2018년 활동이 중단됐다. 5년 동안 공백기를 지켜본 진주 불교계 스님들과 교수들이 대학생 전법을 결의하며 지난해 8월 22일 진주 미륵암에서 재창립 법회를 봉행했다. 이후 부처님오신날 연등행렬 및 삼사순례단 활동 등을 이어갔고, 대학교 동아리 축제 활동 부스 운영 등 다채로운 활동 결과를 보여줬다. 현재 5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 중이며 매월 셋째 주에 진주 미륵암에서 정기모임과 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예술로 승화된 '광복'의 환희

비영리민간단체 음악풍경
범어사와 음악콘서트 개최


광복절 제78주년을 기념하는 음악콘서트 '노래여, 겨레의 노래여'가 8월 17일 범어사 선문화교육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광복절 제78주년을 기념하는 음악콘서트 '노래여, 겨레의 노래여'가 8월 17일 범어사 선문화교육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음악회는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곡들로 선정됐으며, 지난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에서 모은 곡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과거에 남과 북이 함께 부르고 지금 현재도 애창하는 곡 가운데 역사적 의미와 음악적 완성도가 높은 곡 50개를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콘서트는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선정한 곡들 가운데 10곡을 골라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동요와 가곡, 가요와 민요 등 대중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고향의 봄' '오빠생각' '동무 생각' 등이다. 아울러 탱고 및 사랑의 찬가 등을 프로그램 추가해 즐거움을 더했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범어사는 3·1운동 당시 명정학교, 지방학림 학생들과 함께 부산 만세운동의 근원이 된 호국성지이며 부산지역 독립운동의 기폭제가 됐다"고 콘서트 개최 의미를 전했다.

한편,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이번 음악회에 앞서 3.1절을 기념하며 '삼국유사: 기록하다' 특별전을 기획하고 개막했다. 특별전은 1부 기록을 남기다, 2부 나라를 지키다, 3부 역사를 전하다로 구성됐다. △1부 '기록을 남기다'에서는 〈삼국유사〉에 담긴 기록에 대해 소개한다. △2부 '나라를 지키다'에서는 〈삼국유사〉를 지키고, 기록으로써 나라를 지킨 이야기에 대해 소개한다. △3부 '역사를 전하다'에서는 〈삼국유사〉를 전하고, 나라를 지켜 역사를 전한 고승들에 대해 소개한다. 아울러 의병장 고광순(1848~1907)이 사용한 '불원복(不遠復)' 태극기로 마무리 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통도사, 제2회 전국 사생대회 개최

10월 7일, 개산 1378주년 기념…9월부터 접수

영축통림 통도사(주지 현덕)가 '제2회 전국 초·중·고 사생실기대회'를 개최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 통도사는 전국 청소년에게 세계문화유산 통도사의 자연과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생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생대회는 10월 7일 오전 10시 통도사 경내에서 열린다. 접수는 9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참가대상은 전국 초·중·고등학생이며 참가비는 무료다. 통도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우편으로 (사)한국미술협회 양산지부에 보내거나 메일(ysart@kakao.com)로 접수하면 된다. 사생대회는 초등부 저학년과 고학년, 중등부, 고등부로 나눠 진행되며, 상금과 함께 상장이 수여된다. 상금은 대상 100만원(1명), 최우수상 각 70만원(3명), 은상 각 30만원(6명), 동상 각 20만원(15명), 특별상 각 30만원(3명)이며 특선과 입선은 상장이 지급된다. 수상결과는 10월 13일 통도사와 (사)한국미술협회 양산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상식은 10월 23일 오전 10시 통도사 설법전에서 열린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세계평화 · 국태민안' 수륙무차천도재

한국불교문화협회, 부산 영도 아미르공원서



한국불교문화협회(이사장 호법)가 8월 20일 부산 영도 아미르 공원에서 '제2차 국제수륙무차천도재'를 봉행했다.〈사진〉

전쟁 없는 지구촌을 기원하며 열린 이번 행사는 개식선언으로 시작해 △환영사 △발원문 △헌화 및 내빈 소개 △영가에 올리는 음성공양 △축사 △추도사 △영상메시지 △음성공양 △부산다문화국제학교 학생 공연 △청법가 △법어 순으로 진행됐다.

봉행위원장 호법 스님은 "'수륙'이라는 것은 바다와 육지로서 오대양 육대주를 말하는 것이며, '무차'라는 것은 인종과 국적 어떠한 것도 가리지 않고 평등하다는 뜻"이라며 "지구촌의 오대양 육대주에서 희생되어 우주 공간을 외로이 떠돌고 있는 모든 영령들을 위해 평등하게 재를 베풀어 그들을 행복의 세계에 이르게 하고자 행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들을 안식에 이르게 하는 것은 모든 이기심이 사라진 인류 보편적 가치인 사랑이다. 그것이 피맺힌 한을 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장애아동 세대에 도움 되길"

사단법인 미소원, 저소득가정 생필품 지원



사단법인 미소원(이사장 장유정)이 8월 19일 개금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 장애아동세대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부산불교복지협의회가 진행하는 지역 장애아동세대 후원을 위해 미소원은 실생활에 필요한 세제, 휴지, 라면, 식용유 등 1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다. 생필품은 지역 내 저소득 장애아동 5세대에 전달됐다.〈사진〉

장유정 미소원 이사장은 "요즘 물가가 치솟고 형편이 어려운 가정은 필요한 생필품을 사는 것도 힘겨운 실정"이라며 "날씨는 무더워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 건강이 염려된다. 이번에 전달한 생필품이 저소득 장애아동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불교복지협의회장 정여 스님은 "생필품 전달이 무더위에 지친 저소득 장애아동 세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협의회에서 여러 단체, 기관들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부처님 자비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감사를 표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